

FC바르셀로나, '라이벌' 레알 꺾고 2년 연속 라리가 우승

등록 2026.05.11 10:23:12



[바르셀로나=AP/뉴시스] FC 바르셀로나 선수들이 10일(현지 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 캄노우에서 열린 2025-26 스페인 라리가 35라운드에서 레알 마드리드를 꺾고 우승하며 트로피를 들고 환호하고 있다. 바르셀로나는 레알 마드리드를 2-0으로 꺾고 잔여 경기와 상관없이 우승을 확정하며 2연패를 달성했다. 2026.05.11.

[서울=뉴시스] 김진업 기자 = 스페인 프로축구 프리메라리가 '명문' FC바르셀로나가 '라이벌' 레알 마드리드를 꺾고 리그 2연패를 달성했다.

바르셀로나는 11일(한국 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스포티바이 캄 노우에서 열린 2025~2026시즌 라리가 35라운드 홈 경기이자 레알과의 엘 클라시코에서 2-0 완승을 거뒀다.

이날 승리로 시즌 30승(1무4패) 고지를 밟아 승점 91을 기록한 바르셀로나는 '2위' 레알(승점 77)과의 차이를 14점으로 벌렸다.

라리가는 38라운드 체제로 진행돼, 바르셀로나는 이날 조기 우승을 확정했다.

지난 시즌에 이어 2년 연속이자, 팀 통산 29번째 리그 정상을 달성했다.

바르셀로나와 레알의 맞대결은 '엘 클라시코'라고 불릴 정도로 세계적인 дер비 경기인데, 라이벌전에서 리그 조기 우승을 자축해 기쁨은 배가 됐다.

바르셀로나는 전반 9분 만에 선제골을 기록했다.

페널티박스 바로 앞 오른쪽 부근에서 프리킥을 얻었고, 키퍼로 나선 마커스 래시포드가 왼쪽 상단을 가르는 오른발 슈팅으로 승부의 균형을 깼다.

전반 18분에는 썬기 득점까지 나왔다.

페르민 토레스가 왼쪽 측면에서 올린 크로스를 다니 올모가 힐패스로 연결했다.

박스 안으로 쇄도하던 페란 토레스가 공을 잡았고, 오른쪽 상단을 흔드는 오른발 슈팅으로 두 팀의 간격을 두 골 차로 벌렸다.

이후 레알은 만회골을 위해 분투했지만 득점하지 못했고, 경기는 바르셀로나의 2-0 완승으로 끝났다.



[바르셀로나=AP/뉴스1] FC 바르셀로나 선수들이 10일(현지 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 캄노우에서 열린 2025-26 스페인 라리가 35라운드에서 레알 마드리드를 꺾고 우승하며 한시 플리크 감독을 행가래하고 있다. 바르셀로나는 레알 마드리드를 2-0으로 꺾고 잔여 경기와 상관없이 우승을 확정하며 2연패를 달성했다. 2026.05.11.

바르셀로나가 우승에 닿는 여정이 쉽진 않았다.

경기 당일 한시 플리크 감독이 부친상을 당했기 때문이다.

사령탑은 흔들릴 법도 했지만, 선수단을 지휘하기 위해 테크니컬 에리어를 지켰다.

이에 양 팀 선수단은 애도의 뜻으로 검은 완장을 찼고, 킥오프 전에는 묵념의 시간을 갖기도 했다.

득점한 래시포드와 토레스는 플리크 감독에게 달려가 포옹하며 위로를 전하기도 했다.

플리크 감독은 경기 후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걸 숨겨야 할지 고민했으나, 내겐 가족 같은 선수들에게 알리기로 했다"며 "선수들이 오늘 해낸 일은 믿기지 않을 정도다. 이 순간을 절대 잊지 못할 거다"고 전했다.

반면 레알 마드리드는 지난 8일 미드필더 페데리코 발베르데와 오렐리앵 추아메니가 물리적 충돌을 겪는 등의 잡음에 휩싸였고, 결국 이날 한 골도 넣지 못하며 라이벌에게 우승을 내줬다.

리그뿐 아니라 코파 델 레이(스페인 국왕컵),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등 컵 대회에서도 탈락해 두 시즌 연속 무관에 그치게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wlsduq123@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